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향상 효과분석 연구

고 선 주(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장) · 김 은 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홍보팀장)  
안 은 진(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교육팀원)

최근 한국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화합과 적응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이 서비스의 경우 막대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볼 때 서비스의 효과성 분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나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서비스 참여 전·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라 한국어능력 향상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능력 향상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2010년 15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에 참여한 전체 결혼이민자의 초기면접,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전체 11,975 사례 중 부실 혹은 오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한국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총 9,721 사례를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국어능력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선정 외(2010)가 개발한 한국어교육서비스 사전·사후 척도(축소형)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교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집필 저자들이 성취도 평가를 위해 공동 개발한 척도이다. 한국어능력 향상정도는 사후검사점수에서 사전검사점수를 감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능력 향상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서비스를 받기 전·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평균 및 각 단계별 점수의 평균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른 한국어능력 향상도 차이의 경우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경우가 한국어능력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변수 중 연령은 20세 미만, 20세~30세 미만, 40세~5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50세 이상의 순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의 순으로 한국어능력 향상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족 변수에서는 가족 월 수입이 높을수록, 무자녀인 경우, 또한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한국어능력 향상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의 접근 방법이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관련 연구의 방향 및 서비스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방문교육서비스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용가능한 변수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한국어능력 향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및 서비스 내용 등에 따른 변수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의 서비스가 지역과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시행되었다면 향후에는 지역에 따라, 개인 및 가족의 환경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진보가 필요할 것이다.